

# 茶山 占法[蓍卦法]과 白雲 占法の 문제점 탐색

曹喜寧\*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 • 국문초록

본 글은 다산 정약용과 백운 심대윤의 점법의 설시법과 점단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周易占으로 통용되는 주자 점법의 설시법과 점단법을 살펴보았다. 주자 설시법의 문제점은 사상발생 확률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점단법의 문제점은 多爻變時 占辭가 충돌하는 것과 『左傳』 점사 ‘艮之八’에 대한 해석의 임의성을 들 수 있다. 다산 점법에서 설시법의 문제점은 시초에 인공적으로 숫자를 새기고 시초를 세지 않고 뽑는 행위가 문제라고 봤다. 다산 점법의 점단법에서 문제점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설시해서 다효변이 나올 경우는 주역점이 아니고 하나라 상나라 점법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다효변시 점단할 1개 변효를 구하기 위해 11,520개 죽책인 만수책을 운용하는 문제이다. 하나의 占事に 50개 시초와 11,520개 죽책으로 2번 점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역점에 2개의 점의 도구가 필요한 근거가 있는지를 문제점으로 봤다. 만수책은 실제 점사에 운용하기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11,520개의 죽책과 이것을 담은 450여 개의 점대통이 필요한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렵고 설령 만들더라도 그것을 실제 점사에 운용하기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백운 점법은 실시법에서는 주자와 같이 사상발생 확률의 불균형이 문제이다. 점단법의 문제점은 동효의 9,6을 더하고 4로 빼서 나머지가 7이면 본괘 패사로 점단하고, 8이면 지괘 패사로 점단하는 것은 효변설의 입장에서 문제라고 봤다. 또 5,6,7,8의 수로 점단하려는 괘와 효를 구하는 명시적 근거나 관습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했다. 아울러 ‘數動爻’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어서 변효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左傳』과 『國語』의 다효변의 점례를 분석한 결과 어느 점법이 정확한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산의 점법은 세밀하지만 복잡하고 백운의 점법은 간단하여 허점도 있다. 다산은 선학들이 논하지 않은 부분까지 살펴서 새로운 점법을 창안한 그 치밀성은 참으로 놀랍다. 허나 만수책과 하상지구법이 다산 점법의 아킬레스건이다. 특히 만수책 때문에 다산 점법이 ‘口頭占法’, ‘紙上易占’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주제어 : 다산 점법, 백운 점법, 주자 점법, 『左傳』과 『國語』, 만수책

## I. 서론

본 글은 茶山 丁若鏞(1762~1836, 이하 ‘다산’이라 함)과 白雲 沈大允(1806~1872, 이하 ‘백운’이라 함)이 각자 창안한 占法의 揲蓍法과 占斷法을 분석하여 각각이 지닌 ‘문제점’을 탐색하려는 논문이다.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언급하여 본 논문의 취지를 명확히 한다.

첫째, 현재 周易占으로 통용되는 朱子(1130~1200) 점법을 먼저 살펴보고 다른 점법을 살펴본다. 주자 점법의 실시법과 점단법 및 그 문제점을 간략히 적시하고 논의를 진행하며 마지막에 『좌전』과 『국어』의 多爻變[爻亂動] 점례도 검토한다.

둘째, 다산에 대해서이다. 다산 역학은 그 독창성과 방대함이 조선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蓍卦傳」을 통해 주자 점법과 다른 점법을 새로 발명했고 그 내용이 참신하다는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산 역학에 매료되고 그의 자부심에 고무되어 그 내용이 지닌 문제점 파악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백운 점법에 대해서이다. 백운이 새로운 점법을 발명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백운에 대해서는 爲堂 鄭寅普(1893~1950?)가 “그의 학설은 청대 戴震(1724~1777)과 비슷하지만 크고 활달함은 그보다 낫다. …… 三韓 경학의 빛이다.”<sup>1)</sup> 라고 할 정도로 그의 학문 수준을 높이 평가했었다. 그러나 한동안 그의 학문은 잊혀 있다가 199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2005년 『沈大允 全集』이 발간되면서 연구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sup>2)</sup> 백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조선시대 사상사에서 돌출적 존재”<sup>3)</sup>라고 하거나, 혹은 “조선후기 지성사에 뚜렷한 위치를 차지했다”<sup>4)</sup>라고 했다.

1) 백운의 『閒中隨筆』 「鄭寅普 識(1938 추정)」(연세대 보관)에서, 정인보는 “說近戴震, 而閱肆過之. …… 然平心而論, 精義英解卓鑠 羣言之林, 爲三韓經學光.”라 했다. 심대운 지음 익선재 백운집 강독회 옮김, 『백운 심대운의 백운집』, 사람의 무늬, 2015, 31면. 김재화, 「심대운 철학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8, 2면에서 원문 일부 재인용.

2) 백운에 대한 연구를 보면, 석박사학위 논문이 12편 정도, 단행본 다수와 논문이 50편 정도가 나왔다. 백운에 대해서는 張炳漢이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 또 임형택, 진제교, 김문용, 백민정, 손혜리, 조성산, 김하라, 김재화, 오동하, 김대중 등의 저술과 논문도 있다. 원전자료로 『韓國經學資料集成』, 『沈大允全集』이 있고 『白雲集』 번역본도 나왔다.

3) 김문용, 「심대운의 복리사상과 유학의 세속화」, 『시대와 철학』 2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2면.

4) 김대중, 「신체유물론적 시각에서 본 심대운의 ‘노동 옹호 윤리학’」, 『민족문화연구』 88, 고려대

그가 37세 되던 1842년, 先後天說과 爻變說 및 福利思想, 象數와 占筮로 易理 도출이란 방법으로 『周易象義占法』을 짓고 그 속에 새로운 점법을 실었다.<sup>5)</sup>

넷째, 다산이나 백운이 새로운 점법을 발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이다. 그들은 주자 점법이 내포한 다효변인 경우 점단의 불규칙성, 占辭의 충돌 등의 문제에 난감해했고, 특히 『左傳』 襄公 9년(B.C. 564)의 占辭에 나오는 이른바 ‘艮之八’에 대한 주자 점단의 임의적 자의성이 새로운 점법 개발에 눈을 돌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당시 학문사상계의 흐름이다. 조선 후기 주자학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고 西學과 淸學 등 외래사상의 유입에 따른 전환기적 상황은 점법에도 변화를 요구했고 다산과 백운은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다. 기실 주자 점법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었으니 노론계 大谷 金錫文(1658~1735)과 성호학파 星湖 李瀾(1681~1763)과 河濱 愼後聃(1702~1761)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점법을 발명하거나 주자와 다른 해석법을 제시했고, 그것이 다산과 백운의 점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sup>6)</sup>

여섯째, 다산과 백운에 대해서이다. 둘 사이는 시대적 차이와 신분의 차이, 학파적 차이 및 지역적 차이, 명성의 차이가 있어 전혀 이질적이다.<sup>7)</sup> 그러나 다른 시공간에서

민족문화연구원, 2020, 253~307면, 254면 참조.

- 5) 백운 역학에 대해서는 4~5편의 논문이 있다. 장병한, 「白雲 沈大允의 『周易象義占法』에 대한 일고찰-19세기 天主學說에 대한 儒學의 대응과 극복의 관점에서」, 『韓國思想史學』 33, 한국사상사학회, 2009, 253~278면; 오동하, 「『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沈大允의 易學思想 研究」, 동방문화대 박사학위논문, 2018; 조희영, 「『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白雲 沈大允 易學의 특색-새로운 占法과 爻變說 및 先後天說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301~329면. 이외 오동하, 최정준 공저 논문이 있다. 이 중에서 오동하와 조희영의 논문에 백운의 점법이 있다.
- 6) 김석문의 새로운 점법에 대해서는 구만옥, 「18세기 후반 金錫文과 『易學圖解』의 발굴-黃胤錫의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7, 2017, 30~48면. 조희영, 「김석문의 『易學二十四圖解』에 나타난 새로운 占筮法 연구」, 『한국문화』 9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243~275면 참조. 이익, 신후담과 다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Ⅲ)-이익, 신후담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35~61면;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周易四箋』 「蓍卦傳」의 성립과정」,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연구회, 2019, 48~71면 참조.
- 7) 백운의 내력이다. 원래 청송 심씨 소론계 명문으로 고조부 심수현(1663~1736)은 영의정을 역임했다. 그러나 증조부 심악(1702~1755)이 이조참판 재직시 乙亥獄事에 연루되어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고 집안은 모두 유배되어 유배지에서 노비로 전락했다. 다행히 백운의 부친이 출계하여 安城 佳谷으

둘 다 爻變說<sup>8)</sup>을 주장하고 새로운 점법을 발명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둘을 같은 지면에서 함께 다룬다.

본 글에서는 다산과 백운을 동렬에 놓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두 사람 점법의 문제점들을 탐색할 것이다. 두 사람 점법에 대한 ‘비판적 탐색’을 논제로 한 글은 아마 본 논문이 처음일 것이다.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점사 진행 과정의 각 부분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분석 비판할 것이다. 논의는 본론에서 ‘주자-다산-백운’ 순으로 각각 ‘설시법-점단법-문제점’을 분석하고 결론에서 다시 정리할 것이다. 저본은 『與猶堂全書』와 『주역상의점법』이 실린 『韓國經學資料集成(易經)』과 『易學啓蒙(性理大全 本)』 및 『周易傳義大全』으로 한다.

## II. 본론

### 1. 주자의 점법

#### 1) 撰蓍法

주자의 설시법은 「계사전」 上 제9장을 기초로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로 들어가 노비신세를 면했지만 역적의 후손이 되어 집안은 몰락했다. 백운은 동생들과 木盤을 직접 만들고 약을 지어 팔면서 곤궁한 생계를 꾸렸다. 백운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生於憂患, 長於困窮’이라 했다. 그러나 힘든 시기에도 학문의 끈을 놓지 않고 100 여권의 경학관련 주석서를 내었다. 교우 관계도 제한적으로 강화학과 후손이나 소론계 인사 소수에 불과하고 명문 사대부는 없었다. 당연히 다산과의 연결고리는 없다. 김재화, 앞의 논문, 12~13면 참조. 백운은 조선유학자로서는 드물게 ‘利慾’과 ‘公共福利’를 철학적 아젠다로 삼고, ‘노동하는 유학자’의 전형이었기에 학계에서 주목한다.

- 8) 여기서 말하는 ‘효변설’이란 變爻로 점단함을 말한다. 노양9는 음효로, 노음6는 양효로 변하여 本卦가 之卦(變卦)가 되고 변효로 점단한다. 예를 들면, 坤卦䷁ 六二는 師卦䷆가 되어 ‘坤之師’로 보고 점단한다는 것이다. 이 설은 「계사전」 上 3장. “爻者, 言乎變者也.”에 근거한다. 효사의 첫 수 九(陽, 육[六]陰에서 9→음, 6→양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조선역학에서 효변설을 주장한 사람은 3명으로 알려져 있다. 시대순으로 보면, ‘하빈-다산-백운’이다. 이 세 명의 효변설 내용이 일일이 합치하지는 않지만 이들을 하나의 ‘효변학파’라고 묶을 수도 있다. 하빈과 다산은 성호학파란 끈이 있지만 백운은 그마저도 없다.

크게 넓은 대연의 수[大衍之數]<sup>9)</sup>는 50이나 그 사용하는 것은 49이다. 이를 나누어 둘로 만들어 하늘과 땅이란 兩儀를 상징하고, 하나를 걸어서[掛一] 하늘, 땅, 사람의 三才를 상징하고, (시초를) 넷으로 세어[揲之以四] 四時를 상징하고, 남는 것을 손가락 사이에 끼움[扚]으로 윤달을 상징하니, 5년에 윤달이 두 번이다. 그러므로 두 번 끼움[扚]한 뒤에 거는 것[掛]이다.<sup>10)</sup>

위의 과정으로 1變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 3번 일어난 3變으로 한 줏가 생기고 18變으로 6줄이 완성되어 하나의 卦가 생겨난다. 이것을 “네 번 경영하여 易을 이루고 열여덟 번을 변해서 괘를 이룬다[四營<sup>11)</sup>而成易, 十有八變而成卦]”라 했다.

위의 설시과정을 순서대로 다시 설명한다. ① 대연지수 50에 같음하는 50개 시책을 서 하나를 뺀 49개 시책을 양손으로 둘로 나누고[分而爲二以象兩], 양쪽[왼쪽은 天策 오른쪽은 地策]에 내려 놓는다. ② 오른쪽에 둔 地策에서 하나를 취해 왼손 새끼손가락 사이에 걸고[掛一以象三:三才], ③ 왼쪽에 둔 天策을 오른손으로 4씩 세고[揲之以四以象四時], ④ 세고 남는 시책을 왼손무명지 사이에 끼우고[歸奇於扚以象閏], ③오른쪽에 둔 地策을 4씩 세어 ④남는 시책을 왼손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五歲再閏, 故再扚而後掛]. 이상 ①~④의 경영이 1번의 설시이자 1變으로 “四營而成易”이다. 1호 산출에 3번 설시[3變]하니 18번 설시[18變]로 6호가 생성되고 1괘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十有八變而成卦”라 했다. 시초를 손가락에 걸고[掛] 끼운다[扚]는 뜻에서 걸고 끼운 시책의 총수를 ‘掛扚之數’라 하고, 49시책에서 이 수를 뺀 수를 ‘過揲之數’라 한다. ‘과설지수’란 49개 시책에서 손가락에 걸고 끼운 시책을 제외한 시책을 4로 세어서 지나간 시책총수라는 뜻이고 결국 49시책에서 ‘괘득지수’를 뺀 수이다.

9) ‘大衍之數’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다. 京房(B.C.77~B.C.37)은 10일 12신 28수를 합해 50이라 했고, 鄭玄(127~200)은 천지지수 55에서 오행수 5를 제외한 50이라 했으며, 王弼(226~249)은 천지의 수를 넓혀 50이고 1을 빼 49만 사용하니 1은 역의 태극이라 했으며, 주자는 河圖 중궁의 5와 10을 곱한 수 50이라 했고, 김경방 등은 55라 했고, 다산은 64卦에서 14辟卦(12辟卦+中孚卦+小過卦)를 제외한 50衍卦에서 50이 나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상설, 『내 눈으로 읽는 주역』 역전편 하, 지호, 2011, 742~744면. 정병석 역주, 『주역』 하권, 을유문화사, 2011, 562~564면. 黃壽祺 張善文 撰, 『周易譯注』, 上海古籍出版社(上海), 2007, 513면 참조.

10) 「계사전」 上 제9장, “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 分而爲二以象兩, 掛一以象三, 揲之以四以象四時, 歸奇於扚以象閏, 五歲再閏, 故再扚而後掛.”

11) ‘四營’의 의미에 대해 설이 나뉜다. 주자는 『周易本義』에서, “四營謂分二, 掛一, 揲四, 歸奇也.”라 했고, 『周易集解』에서 荀爽(128~190)은 “營者謂七八九六也.”라 했고 高亨도 이를 따른다.

‘과설지수’를 4로 나누면 9,8,7,6 四象數가 되며 老陽[9] 老陰[6] 少陽[7] 少陰[9]의 四象이 된다. 이렇게 나온 6효가 노양이나 노음인 경우는 음양이 변하고 소양이나 소음은 불변이다.

## 2) 占斷法

주자의 점단법 내용은 『역학계몽』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sup>12)</sup>

〈표 1〉 주자점법 점단 내용

| 구분      | 점단법                                                                                 |
|---------|-------------------------------------------------------------------------------------|
| ① 爻 不變  | 本卦 卦辭로 점단. 內卦爲貞, 外卦爲悔.                                                              |
| ② 한 爻變  | 本괘 變爻로 占斷.                                                                          |
| ③ 두 효변  | 本괘 변효 중 위 변효 위주 점단.                                                                 |
| ④ 세 효변  | 本괘, 之卦 卦辭로 점을 치되, 卦變圖에 의거 지괘가 前10괘에 해당하면 본괘[貞] 괘사 위주 점단, 後10괘에 해당하면 지괘[悔] 괘사 위주 점단. |
| ⑤ 네 효변  | 之卦 不變爻 둘 중에서 아래 불변효 위주 점단.                                                          |
| ⑥ 다섯 효변 | 지괘 불변효로 점단.                                                                         |
| ⑦ 여섯 효변 | 乾卦는 用9, 坤卦는 用6으로 점단하고, 나머지 괘는 지괘 괘사로 점단.                                            |

## 3) 問題點

① 첫째, 주자 실시법으로 실시 할 경우 四象발생 확률이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존 연구<sup>13)</sup>에서 자세히 언급했으므로 내용만 간략히 표로 나타낸다.

12) 『易學啓蒙』 考變占第四, 1163~1176면, ①爻 不變: 凡卦六爻皆不變, 則占本卦彖辭, 而以內卦爲貞, 外卦爲悔.(彖辭爲卦下之辭) ②한 爻變: 一爻變, 則以本卦變爻辭占也. ③두 효변: 二爻變, 則以本卦二變爻辭占, 仍以上爻爲主. ④세 효변: 三爻變, 則占本卦及之卦之彖辭, 而以本卦爲貞, 之卦爲悔. 前十卦主貞, 後十卦主悔. ⑤네 효변: 四爻變, 則以之卦二不變爻占, 仍以下爻爲主. ⑥다섯 효변: 五爻變, 則以之卦不變爻占. ⑦여섯 효변: 六爻變, 則乾坤占二用, 餘卦占之卦彖辭.

13) 신명중, 「朱子와 茶山の 筮法에 대한 비교 연구」, 『퇴계학보』 138, 퇴계학연구원, 2015, 189~221면; 「『周易』 占筮法과 現代의 含意에 관한 研究」, 2017,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51~67면.

〈표 2〉 주자점법 사상발생 확률

| 四象, 四象數 <sup>14)</sup> % | 掛扐之數 奇耦       | 過揲之數      | 경우의 수 산식 <sup>15)</sup>     | 최종확률(%)       |
|--------------------------|---------------|-----------|-----------------------------|---------------|
| 老陽9 (重) 18.75%           | 5,4,4(13) 3奇  | 36(49-13) | $3/4 \times 2/4 \times 2/4$ | $12/64=18.75$ |
| 少陰8 (柝) 43.75%           | 5,4,8(17)2奇1耦 | 32(49-17) | $3/4 \times 2/4 \times 2/4$ | $12/64=18.75$ |
|                          | 5,8,4(17)2奇1耦 | 32(49-17) | $3/4 \times 2/4 \times 2/4$ | $12/64=18.75$ |
|                          | 9,4,4(17)2奇1耦 | 32(49-17) | $1/4 \times 2/4 \times 2/4$ | $4/64=6.25$   |
| 少陽7 (單) 31.25%           | 5,8,8(21)1奇2耦 | 28(49-21) | $3/4 \times 2/4 \times 2/4$ | $12/64=18.75$ |
|                          | 9,8,4(21)1奇2耦 | 28(49-21) | $1/4 \times 2/4 \times 2/4$ | $4/64=6.25$   |
|                          | 9,4,8(21)1奇2耦 | 28(49-21) | $1/4 \times 2/4 \times 2/4$ | $4/64=6.25$   |
| 老陰6 (交) 6.25%            | 9,8,8(25)3耦   | 24(49-25) | $1/4 \times 2/4 \times 2/4$ | $4/64=6.25$   |

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음의 발생 비율이 노양,소음,소양에 비해 너무 낮고, 소음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sup>16)</sup> 즉 노음:노양:소양:소음의 비율이 1:3:5:7로 擲錢法<sup>17)</sup>이나 48개 시책법<sup>18)</sup> 및 다산 점법에 비해 불균형이 심한 것이 문제점이다.<sup>19)</sup>

- 14) 四象數 산출방법은 2가지이다. ①參天兩地論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괘득지수를 4로 나누어 1이면 奇, 2이면 耦이다. 1은 3으로 2는 2로 환산한다. (5,4,4)인 경우 4로 나누면 1,1,1 3奇로  $3 \times 3 = 9$  즉 노양 9가 되고, (9,8,8)인 경우 4로 나누면 2,2,2 3耦로  $2 \times 3 = 6$  즉 노음 6이 된다. ②과설지수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5,4,8)의 경우 과설지수는 32(49-17)로 이를 4로 나누면 소음 8이 되고, (5,8,8)인 경우 과설지수는 28(49-21)로 4로 나누면 소양 7이 된다. 노양, 노음도 같은 원리다.
- 15) 1번에 나오는 괘득지수:不五則九. 2,3번에 나오는 괘득지수:不四則八이다. 1번에서 시초를 왼손가락에 걸고 끼우는 수(掛扐數) 5가 나오는 경우는 (1,3,1), (1,2,2), (1,1,3) 셋이고, 9가 나오는 경우는 (1,4,4) 하나뿐이다. 따라서 1번에서 5가 나올 확률은  $3/4$ 이고 9가 나올 확률은  $1/4$ 이다. 2,3번에서 4가 나오는 경우는 (1,2,1), (1,1,2), 두 가지이고, 8이 나오는 경우도 (1,4,3), (1,3,4) 두 가지뿐이다. 따라서 2,3번에서 4나 8이 나올 확률은 각각  $2/4$ 이다.
- 16) 주자 점법의 사상발생비율 불균형[음양불균형]에 대해 蔡元定(1135~1198) 등은 음양체용수론, 소강절의 體四用三論을 동원하여 적극 옹호한다. 『역학패몽』, 明蓍策第三, 1127~1132면. 채원정의 주장은 신명중, 앞의 2017 논문과 조희영, 앞의 2020 논문 참조.
- 17) 동전 3개 던져 점치는 척전법의 사상발생 확률은 3개 모두 앞면[노양]일 확률  $1/8$ , 1개는 앞면 2개는 뒷면[소양]일 확률  $3/8$ , 1개는 뒷면 2개는 앞면[소음]일 확률  $3/8$ , 3개 모두 뒷면[노음]일 확률  $1/8$ 이다. 전체적 비율은 1:3:3:1, 老少비율 1:3으로 균형적이다.
- 18) 50개 시책에서 48개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법은 蔡元定이 한 말로 『역학패몽』 明蓍策第三, 1130면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때 사상발생 확률은 1:3:3:1이다. 48개 시책으로 새로운 점법을 만든 조선 후기 학자는 金錫文을 들 수 있다. 조희영, 앞의 2020 논문, 259~263면 참조.

② 두 번째 문제점은 점단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다효변[爻亂動]의 경우이다. 점단은 효불변이나 한 효변 및 다섯, 여섯 효변이면 간단하다. 그러나 2~4효변의 경우 점단의 주된 효[혹은 卦]와 나머지 효[혹은 卦]와 점단 내용이 상충할 경우 점단의 전일성이 훼손된다. 점단의 구체적 형태인 吉凶悔吝이나 咎, 无咎, 厲 등의 길흉이 섞여 나오면 占者は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sup>20)</sup> 이것이 주자 점단법의 문제점이다.

③ 세 번째 문제점은 앞에서 말한 『左傳』 점사 ‘艮之八’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자.

『左傳·襄公9年』(B,C, 564년)에 “목강이 동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처음 (목강이)동궁으로 갔을 때 시초점을 치니 艮卦䷳의 八을 얻었다.史가 말하기를 “이것은 艮卦가 隨卦䷐로 변한 것입니다. 隨는 나가는 것이니, 君[목강]께서는 반드시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라 하니, 목강이 말하기를 “그럴 수 없다. 『주역』에 ‘隨는 크게 형통하여 바름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라 하였다. ……<sup>21)</sup> 이 네 가지 덕이 있는 사람은 수괘를 만나면 허물이 없지만 나는 네 가지 덕 모두 없으니 어찌 수괘와 부합하겠는가? 내가 악행을 저질렀으니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반드시 여기서 죽을 것이고 나갈 수 없다”라 하였다.<sup>22)</sup>

19) 대부분의 학자들이 불균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만, 高懷民은 오히려 장점이라 한다. 그 이유는 변효가 많이 나오면 고려요소가 많아 길흉의 판단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소음과 소양이 많은 것은 변효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이런 설계는 文王의 공이라 했다. 高懷民, 『中國古代易學史』, 송실대동양철학연구실 역, 송실대출판부, 1994, 160~161면 참조.

20) 예전대, 雷地豫卦 初六鳴豫, 凶 과 六二爻介于石, 不終日, 貞 吉가 變爻라면, 윗 변효를 위주로 점단하되 아래 변효도 참고한다. 주로 보는 효는 吉이나 참고하는 효는 凶한 경우처럼 길흉이 충돌하는 경우를 말한다.

21) 생략된 부분은 목강이 풀이한 元亨利貞이다. “元體之長也, 亨嘉之會也, 利義之和也, 貞事之幹也. 體仁足以長人, 嘉德足以合禮, 利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幹事. 然故不可誣也, 是以雖隨無咎, 今我婦人, 而與於亂, 固在下位, 而有不仁, 不可謂元, 不靖國家, 不可謂亨, 作而害身, 不可謂利, 棄位而姤, 不可謂貞.” 건괘 문언전 성립과 관련하여 이 占辭는 매우 중요하다.

22) 『左傳·襄公9年』(B,C, 564년), “穆姜薨於東宮, 始往而筮之, 遇艮之八. 史曰, 是謂艮之隨. 隨其出也, 君必速出. 姜曰, 亡. 是於周易曰, 隨元亨利貞, 無咎. …… 有四德者, 隨而無咎, 我皆無之, 豈隨也哉. 我則取惡, 能無咎乎. 必死於此, 弗得出矣.”

위를 요약하면 목강이 시초점을 치니 간괘(䷛)의 8을 얻었고[遇艮之八], 이를 사관이 풀이하기를 “艮卦(䷳)가 隨卦(䷐)로 변한 것”이라 했다. 즉 사관은 ‘艮之八’을 ‘艮之隨’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괘 艮卦의 1,3,4,5,6호 다섯 호가 변해서 之卦인 隨卦를 얻은 占事を ‘艮之隨’라 한다. 그런데 사관은 ‘艮之八’과 ‘艮之隨’를 같은 것으로 본다. 그게 가능할까? 이를 둘러싼 여러 견해가 있어왔다. 여기서는 주자의 견해만 보도록 한다.

다섯 호가 변하면 之卦의 변하지 않는 호로 점단한다. 목강이 동궁으로 가서 시초점을 쳐 艮之八을 얻었다. 사관이 “이는 艮卦가 隨卦로 변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다섯 호가 모두 변하면 육이호만 8을 얻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럴 경우 마땅히 (不變爻인 隨卦 六二爻辭인) “소장부에 매여서 대장부를 잃는다.”로 점단해야 하는데 사관이 망령되어 수괘의 괘사로 대답하니 잘못된 것이다.

주자가 말했다: 간괘가 수괘로 변한 것은 오직 간괘 육이 한 호만 불변이고 나머지 다섯 호는 모두 변한 것이다. 변한 호는 9나 6을 얻은 것이고 불변호는 8을 얻은 것이다. 시초점을 치는 법에는 작은 것을 위주로 한다. 변한 호가 다섯이고 고정된 호[불변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작은 것인 불변호)8로써 점단한다. 그래서 ‘간괘의 8’이라 했다.<sup>23)</sup>

주자의 풀이는 간단하다. 앞에서 천명한 점단법대로 5호변인 경우 之卦 불변 1호인 隨卦 六二爻로 점단해야 되는데 당시 사관이 隨卦 괘사로 잘못 점단했다는 것이다. 先學이 이전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렇게 ‘당시 사관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後學들은 대략 난감하다. 또 주자의 말이니 그 무게가 다르다. 그럼 ‘8’이나 ‘之八’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에 대해 옥재호씨(胡方平)는 “8은 隨卦 六二爻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之卦 불변호로 점친다면 중점은 육이호에 있다. 그래서 ‘之八’이라고 한 것이다.”<sup>24)</sup>

23) 『역학괘몽』 考變占第四, 1172면, “五爻變, 則以之卦不變爻占. 穆姜往東宮, 筮遇艮之八. 史曰, ‘是謂艮之隨’. 蓋五爻皆變, 唯二得八, 故不變也. 法宜以‘係小子, 失丈夫’爲占, 而史妄引隨之彖辭以對, 則非也. 朱子曰, 艮之隨, 惟六二一爻不變, 餘五爻盡變. 變者, 遇九六也. 不變者, 遇八也. 筮法以少爲卦主. 變者五而定者一, 故以八爲占.”

24) 『역학괘몽』 考變占第四, 1172~1173면, “八指隨之六二言也. 以之卦不變爻占, 則重在六二, 故云之八者.”

라고 했다. 그러나 어쨌든 주자가 당시 사관이 잘못 점단했다는 풀이에 후대 사람들이 잘 납득하지 못했고, 옥재호씨의 주석에도 불구하고 ‘艮之八’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후대에 두고두고 논의되는 점례이다. 이 문제는 앞에서 본 ‘다효변[爻亂動]의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左傳』과 『國語』의 점례<sup>25)</sup>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대상이 될 정도로 중요하고 연구할 목록도 다양하다. 주석<sup>21)</sup>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괘 문언전과 본 건 점사와 관련성이 대표적이다. 이때까지 언급한 문제점들이 후학들의 새로운 점법 발명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 2. 다산의 점법[著卦法]

먼저 짚을 것이 하나 있다. 다산의 卜筮觀에 대해서이다.<sup>26)</sup> 다산은 옛사람들은 천지신명과 上帝를 섬기기에 복서로 천명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으로 평소 바름을 지키는 자는 복서를 폐해야 한다고도 말한다.<sup>27)</sup> 이런 가운데 오직 공정한 일로 장래 일의 성패화복을 뚜렷이 알 수 없는 경우에만 天命[卜筮]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sup>28)</sup> 다산은 그 천명을 묻는 절차가 중요하기에 별도로 『著卦傳』을 지었다. 다산 「시패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sup>29)</sup> 여기서는 설시과정의 핵심과 점단의 요체

25) 『左傳』의 점례는 19건, 『國語』의 점례는 3건으로 도합 22건의 점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기를 보면 哀公9년(B.C.486)에서 莊公22년(B.C.672)까지 약 190년간의 일이다. 임정남, 「『春秋左傳』과 『國語』의 『周易』應用에 관한 연구-『春秋左傳』과 『國語』의 筮例를 중심으로」,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19, 1면 참조.

26) 다산의 복서에 대한 자세는 금장태와 윤용남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금장태는 ‘다산의 입장은 오늘날 卜筮가 천명을 묻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한다. 금장태, 「정약용의 “易”해석에서 卜筮의 방법과 활용」, 『다산학』 8, 다산학술문화재단, 2006, 354, 381면. 윤용남은 다산에서 모든 것은 ‘상제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 양심철학의 문제’라고 한다. 윤용남, 「다산 정약용의 良心철학 체계」,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2021, 67~69면.

27)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24권, 『易學緒言』 「卜筮通義」, 999면, “古人事天地神明, 以事上帝. 故卜筮以聽命. ……今人平居既不事神, 若唯臨事卜筮, 以探其成敗, 則慢天瀆神, 甚矣. ……今人守正者, 宜廢卜筮.”

28)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24권, 『周易四箋』 「易論」, 299면, “唯事之出於公正之善, 而其成敗禍福, 有不能逆睹而縣度之者, 於是乎請之也.”

29) 대표적인 몇 개만 든다. 김인철, 「茶山의 獨創的 筮占方法 : 『著卦傳』詳解」, 『周易研究』 6, 韓國周易學會, 2001, 253~293면; 장정옥, 「周易의 상징체계와 易象의 상징체계-茶山易學을 중심으로」,

를 분석하고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한다.

## 1) 설시법

다산은 「계사전」 상 9~11장에서 필요 부분을 택하여 자신의 독특한 관점이 반영된 「蓍卦傳」을 별도로 지어서<sup>30)</sup> 『周易四箋』에 붙였다. 설시과정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연지책 50개에 천지지수 1~10까지의 숫자를 다섯 개씩 새기고[刻], 새긴 부분에 (희생의)피를 바른다[塗血於刻處]. 새겨진 숫자가 1,3,5,7,9이면 天策으로 치이고, 2,4,6,8,10이면 地策으로 耦이다.

② 贛[50개 시책을 보관하는 독. 함, 통, 상자, 껍이라고도 함]에 든 50개의 시책에서 임의로 하나를 뽑아[任抽其一] 제외하고, (그 하나를)수를 일으키는 근본으로 삼는다.

③ 49개의 시책을 두 손으로 가운데 둘로 나누어 좌우 양쪽에 내려놓는다. 한쪽은 반드시 홀수, 다른 쪽은 짝수가 된다. 홀수는 天數, 짝수는 地數이다.

④ 짝수 쪽<sup>31)</sup>에서 하나를 뽑아[任抽其一] 贛帶[상하로 분리되는 독을 묶는 끈. 賈公彥曰, “贛有二. 其一, 從下向上承之. 其一, 從上向下韜之也.”][又云, “贛, 用皮.”]既有二贛, 則二贛相合之後, 必有聯結之帶也.] 사이에 걸쳐놓는다. 이 하나의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신명중, 앞의 2015 논문, 203~206면. 2017 논문 68~74면; 김동진, 「정약용의 주희 筮法 개량과 그 의의-음양노소 불균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산학』 32, 다산학술재단, 2018, 185~224면. 금장태, 앞의 논문, 354~365면.

30) 「蓍卦傳」의 내용을 편의상 번호를 붙여보면 다음과 같다: ①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 分而爲二以象兩, 掛一以象三, 揲之以四, 以象四時, 歸奇於扚以象閏, 五歲再閏, 故再扚而後掛. ②天一, 地二, 天三, 地四, 天五, 地六, 天七, 地八, 天九, 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③乾之策二百一十有六, 坤之策百四十有四, 凡三百有六十, 當期之日. 二篇之策, 萬有一千五百二十, 當萬物之數也. ④是故四營而成易, 十有八變而成卦, 八卦而小成. 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天下之能事畢矣.(계사 상 9장) ⑤參伍以變, 錯綜其數, 通其變, 遂成天下之文, 極其數, 遂定天下之象.(계사 상 10장) ⑥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⑦是故 法象莫大乎天地, 變通 莫大乎四時, 縣象著明 莫大乎日月. ⑧易有四象, 所以示也, 繫辭焉, 所以告也.(계사 상 11장)

31) 49개 시책을 좌우 둘 나누면 어느 쪽이 짝수인지를 알 수 없다. 다산은 반드시 짝수쪽에서 1개를 뽑아야 된다고 한다. 그래야만 이어지는 왼손에 끼우는 시책이 1과 3이 되어 괘득지수가 4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 시책의 홀짝을 미리 세어 확인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책을 걸치는 것을 掛一[權掛]라하고 사람을 상징하여 천지인 삼재가 구비된다. (그 결과)양편의 시책 수는 모두 홀수가 된다.

⑤ 좌측에 둔 시책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네 개씩 헤아리고, 마지막에 남은 시책(1매 혹은 3매)을 왼손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扃]. 4개씩 헤아린 시책들은 筮席 원래 자리에 둔다.

⑥ 우측에 둔 시책도 앞과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 한다. 손가락에 끼운 시책의 총수는 4매이다. 이 때 남은 시책 수가 앞서 좌측 설치에서 1이면 이번 우측 설치가 3이고, 이번 우측이 1이면 앞서 좌측이 3으로 항상 奇數가 되고 합은 4이다. 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나머지[零]와 홀수[奇]의 뜻이다.

⑦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네 개의 시책을 합하여 임의로 하나를 뽑고[任抽其一] 3매는 버린다.

⑧ ⑦에서 뽑은 1매와 먼저 贖帶에 걸쳐 두었던 權掛1매와 합해서 2매를 비벼 돌리서 그 중 하나를 뽑아서[抽之一] 그 시책에 새겨진 수를 서판에 적고 贖帶 사이에 걸쳐둔다. 이것이 再扃 후에 거는 것으로 正掛라 한다. 이런 과정으로 제일번이 된다.

⑨ 49개의 시책을 가지고 ②부터 ⑦까지의 행위를 세 번하게 되면 하나의 劃을 얻게 된다. 奇耦 판별은 마지막 뽑힌 시책에 새겨진 숫자가 1,3,5,7,9 天數이면 奇, 2,4,6,8,10 地數이면 耦가 된다.<sup>32)</sup>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50개 시책에 천지지수 1~10까지 숫자를 새기며 거기다 (희생의)피를 바른다. 1,3,5,7,9는 기수[홀]로 천수이고, 2,4,6,8,10은 우수[짝]로 지수가 된다. 시책 1개를

32)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24권, 『周易四箋』, 「著卦傳」, 663~670면, ①每著一筮, 各刻以天地之數(鬻筮者, 塗血於刻處), 刻一之筮五枚也. 刻二之筮五枚也. 三·四·五·六·七·八·九·十各具五枚, 此之謂大衍之筮五十也. ②五十之中, 任抽其一, 除之, 爲起數之本(自二三, 至於千萬, 其本皆起於一) 則五十之筮, 未嘗不全用也. ③四十九筮, 信手中分, 則其一必成奇數, 其一必成偶數(假如一手得十九, 則其一手必得三十) 奇者, 天數也. 偶者, 地數也. ④掛者, 掛之於贖帶之間也(贖者, 五十筮所藏之櫃) 象兩之筮既分(分置筮席之左右) 就其陰筮(得偶數之筮)之中, 任抽其一(信手取) 掛之於贖帶之間也(帶, 所以繫贖) 謂之掛者, 卦由此成 …… 仍是權掛 …… 掛一之筮以象人(掛之於天策·地策之間) 其必一筮者, 筮之所主者一人也. ⑤ ⑥奇者, 陽數也不偶曰奇也 又零數曰奇也. ⑦次取所扃之筮四枚(一與三合之得四) 任抽其一(信手取) 以爲掛一之用(棄其三) ⑧於是取前所掛之一筮(揲四之前所掛者) 與今所抽之一筮(再扃後所抽) 合同摩轉(令不容私意) 擢其一而掛之(亦於贖帶間) 此之謂再扃而後掛也, 此之謂正掛也(前所掛者, 權掛也)

뽑아[抽] 제외하는데 그것을 起數의 근본으로 삼는다.

② 49개 시책을 양손을 나누면 한쪽은 홀수 한쪽은 짝수이고, 짝수 쪽에서 1개를 뽑아[抽], ‘독’<sup>33)</sup>을 묶는 끈[韁帶]에 걸쳐놓는다. 이는 사람을 상징하고 掛1로 權掛라 한다.

③ 왼쪽 시책을 4개로 세면 마지막에 남는 시책은 1혹은 3인데 이것을 왼손 손가락에 끼운다. 오른쪽 시책도 4개로 세면 나머지가 (앞에서 3이면)1혹은 (앞에서 1이면)3으로 왼손 손가락에 끼운다. 손가락에 끼운 시책은 총4개이다.

④ 왼손에 낀 4개 시책에서 임의로 1개를 뽑아[抽] 이미 독대에 걸쳐놓은 1개[權掛]와 합해 2개를 비벼 돌리면서 그 중 1개를 뽑아[抽] 새겨진 숫자를 서판에 기재하고 독대에 걸쳐놓는다. 이 시책에 새겨진 숫자에 따라 奇耦가 결정되며 이것이 正掛로 제일번이다.

⑤ 이를 3번하면 1劃이 되고 18번하면 6획이 되어 卦가 이루어진다.

다산 설시법은 결국 1~10까지 숫자가 새겨진 50개의 시책을 가지고 4번의 시책 뽑는[抽] 행위<sup>34)</sup>에서 기우가 정해져 획이 결정된다. 중점은 2군데이다. 하나는 ‘시책 뽑기’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뽑힌 시책에 새겨진 숫자’이다. 이것이 ‘시책을 세어서 [揲之]’ 획을 정하는 주자 설시법과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다. 괘득지수[왼손에 낀 시책 4]는 있는데 가과지수가 없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그 이유는 ‘시책을 세어서 [揲之]’ 기우를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다산 설시법의 四象發生 확률은 어떠한가. 기존 연구에서 이를 각각도로 논했다. 그 내용은 노양,소음,소양,노음의 四象發生 확률이 균등하나 아니면 1:3:3:1에 근접한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다.<sup>35)</sup> 필자는 노양,소음,소양,노음의 비율이 1:3:3:1

33) 韁은 가죽으로 만든 시책 담는 (점대)통을 말한다. 賈公彥又云, “韁, 用皮.” 위아래 분리 가능.

34) ‘뽑는다[抽]’는 측면에서 보면 다산 설시법에서 1개 시책을 뽑는 행위 총 4회이다. ①50개에서 1개를 뽑아 ‘起數之本’으로 삼는 것. ②49개 시책을 양분하여 짝수쪽 무더기에서 시책 1개를 뽑아 韁帶 사이에 걸쳐 掛1(權掛)로 삼는 것. ③왼손 손가락에 끼운 4개의 시책에서 1개를 뽑는 것. ④ ②와 ③에서 생긴 시책 2개를 비벼 돌리면서 1개를 뽑아 새겨진 숫자를 확인하여 기우를 정하는 것. 이를 正掛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시책을 뽑는 ④번이다. ‘掛’는 2번, 權掛와 正掛이다. 여기에는 만수책인 11,520개 죽책 운용으로 1개 죽책을 뽑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35) 장정옥은 2009년 논문 150~151면에서 사상의 확률이 균등함을 말했고, 신명중은 2017년 논문 71면에서 장정옥의 계산 잘못을 지적하며 노양, 소양, 소음, 노음의 비율이 11.75%: 38.25%:

[老少비율 1:3]으로 본다.<sup>36)</sup> 자세한 내용은 기존 연구<sup>37)</sup>에서 알 수 있으니 이만 그친다. 하나 확실한 것은 주자 점법에 비해 사상발생 확률이 균형적이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다산 점법의 큰 장점이다.

## 2) 점단법

점단법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36.72%: 13.28%라 한다. 신명종은, 산출 확률이 서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항상 음과 양의 사이에는 1.53%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다. 김동진은 2018년 논문 211~216면에서, 신명종의 계산 잘못을 지적하며, 세밀한 수학적 논증을 통해 1:3:3:1로 사상의 비율이 균등함을 말했다. 필자는 김동진의 주장에 동의한다. 김동진은 중국역학에서 해결 못한 사상비율 불균형을 다산이 해결했다고 극찬한다.
- 36) 다산 설치법에서 사상발생 확률의 과정을 하나의 사례를 가정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5개의 천수와 25개의 지수 합 50개 시책에서 '시책 뽑기'는 4회이다. 만약 처음 뽑기에서 25개 천수에서 1개를 뽑았다면 확률은  $1/25$ 이고, 두 번째 뽑기는 천수 24, 지수 25 합 49개 중에서 뽑는 것인데, 만약 천수에서 1개 뽑았다면 확률은  $24/49$ 이다. 세 번째 뽑기는 천수 23, 지수 25 합 48개 중에서 뽑는 것인데, 만약 지수에서 1개 뽑았다면 확률은  $25/48$ 이다. 마지막 네 번째 뽑기는 두 번째 뽑은 천수 1개와 세 번째 뽑은 지수 1개를 합한 2개에서 1개를 뽑아 새겨진 숫자로 기우를 결정하니 천수나 지수를 뽑을 확률은 각각  $1/2$ 이다. 여기서 천수 지수의 조합은 '천수·천수·지수·천수(혹은 지수)'이다. 이를 계산해보면, (분자) $1 \times 24 \times 25 \times 1 /$ (분모) $2 \times 49 \times 48 \times 2 = 600/9408$ 이다. 이런 형태의 천수와 지수 조합은 16가지이다. 이처럼 4번 시책 뽑기에서 나오는 천수지수(기우)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다산 설치법의 사상발생 확률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앞의 김동진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7) 신명종, 앞의 2017 논문, 68~74면. 김동진 앞의 논문, 211~215면 참조. 김동진의 논문에서 하나 지적할 것이 있다. 김동진의 논문 205면과 212~213면에서 왼손에 끼운 4개 시책에서 뽑은 시책(세 번째 뽑기를 正掛로 보는데 이는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正掛란 마지막 뽑기(네 번째) 즉 권괘1개와 직전 1개를 합한 2개에서 비벼 뽑은 최종 1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3면의 확률계산은 틀리지 않는다. 「著卦傳」, “於是取前所掛之一策[揲四之前所掛者] 與今所抽之一策[再扐後所抽合同摩轉令不容私意] 擢其一而掛之[亦於贛帶間] 此之謂再扐而後掛也, 此之謂正掛也[前所掛者, 權掛也]” 김인철, 앞의 논문, 266~267면, 신명종, 앞의 2017 논문, 70면 참조.

〈표 3〉 다산점법 점단 내용

| 구분      | 점단법                                                                                                         | 비고    |
|---------|-------------------------------------------------------------------------------------------------------------|-------|
| ① 爻 不變  | 本卦 卦辭로 점단.                                                                                                  | 주자와 同 |
| ② 한 爻變  | 본괘 變爻로 占斷.                                                                                                  | 주자와 同 |
| ③ 多爻變   | 1) 다효변일 경우는 夏, 商나라의 점법이라고 함.<br>2) 하나의 변효를 구하기 위해 64괘 384효의 이름이 새겨진 11,520개 竹策, 즉 萬數策 <sup>38)</sup> 을 사용함. |       |
| ④ 여섯 효변 | 乾卦는 用9, 坤卦는 用6로 점침. 나머지 62괘는 다효변의 점단법 적용.                                                                   |       |

효 불변이나 1효변의 경우 점단 방법은 주자와 같다. 다른 부분은 앞에서 말했듯이 다효변인 경우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산은 다효변인 경우 주역점이 아니라 하나라, 상나라 점법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은 조선에서는 처음이나 杜預(222~285)와 韋昭(204~273)가 앞서 주장했고 다산은 이들의 견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sup>39)</sup> 다산의 주장 내용을 보자.

『周易』은 오직 하나의 爻만 변한다. 그러므로 주공이 효사를 지을 적에 단지 하나의 효변에 근거하여 象을 살펴 占法을 세웠다.<sup>40)</sup>

『주역』에는 여러 효가 어지럽게 변동하는 그런 법이 없다. 여러 효가 어지럽게 변동하면 物象이 雜糅하여 비록 周公이나 孔子의 지혜라고 하더라도 조화

38) ‘萬數策’이란 竹策 11,520개로 50개의 蓍策과 구분되는 것이다. 이는 繫辭上9장의 “二篇之策萬有一千五百二十當萬物之數也”에서 유래된 것이다. ‘萬數策’은 64괘가 모두 양획과 음획으로 반반씩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양획과 음획은 각각 36개와 24개의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획의 책수는 192효×36책=6,912, 음획의 책수는 192효×24책=4,608로 도합 11,520이 된다. 11,520개 죽책에는 384효의 음양효의 책수만큼 즉 양획은 36개, 음획은 24개씩 각 괘와 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39) 방인, 「丁若鏞의 『春秋官占補註』의 夏商之舊法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131, 2012, 161~190면; 「춘추시대 官占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 다산학술문화재단, 『다산학』 28, 2016, 209~240면 참조.

40)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24권, 『周易四箋』, 「春秋官占補註」, 590면, “易有一爻有變. 故周公之撰爻詞, 只據一爻之變而觀象立占也. 苟於一筮之間而諸爻亂動, 則其卦德物象混淆紊雜, 雖以姬孔之智, 亦無以化而裁之矣.”

롭게 엮어낼 수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좌전』이나 『국어』에 기록된 것은 夏나라 商나라의 점법이고 『주역』의 占法과는 매우 다른 것이지만 지금은 고증할 수가 없다. 만약 『주역』에 이런 법이 있었다면 반드시 『주역』에 이런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彖詞와 爻詞를 차례대로 보아도 이런 점법의 사례가 나온 것이 있는가.<sup>41)</sup>

다산은 주역점에서는 1효변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여러 효가 변하면 괘덕과 물상이 뒤섞여 점을 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좌전』이나 『국어』에 기록된 것과 같은 다효변<sup>42)</sup>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주역』의 점법이 아닌 ‘夏나라 商나라의 점법[夏商之舊法]’이라고 한다. ‘하상지구법’의 구체적 점법 내용은 무엇인가. 다산은 이에 대해 별 말이 없다. 다산이 구체적 사례로 든 것 하나만 보자. 앞에서 본 『좌전』 양공 9년 ‘穆姜東宮之筮’ ‘艮之八’의 경우에 대해, “사관이 하나라 상나라의 법으로 점쳐서 ‘隨는 나가는 것’이라 했고, 목강은 『주역』의 뜻으로 점을 쳤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주역』 운운했다.”<sup>43)</sup>라 했다. 다산은 사관이 ‘艮之八’을 ‘隨는 나가는 것[隨其出也]’이라고 풀이한 것은 ‘하상지구법’이고, 목강이 隨卦의 卦사 元亨利貞 无咎로 풀이한 것은 주역점법이라는 것이다.<sup>44)</sup>

다산은 주역점은 한 효변이 원칙인데 乾坤卦의 6효변인 用9用6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용9용6을 들어 다산의 1효변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sup>45)</sup> 다산은 건괘와 곤괘에만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41)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24권, 『易學緒言』, “周易無此法也。諸爻亂動則物象雜糅，雖以姬孔之智，亦無以化而裁之矣。若左傳國語之所記，是夏商之法，與周易占法迥殊，今不可考。若周易有此法，則必周易有此例，歷觀乎彖詞爻詞，有曾發例於此法者乎。”

42) 다산은 모두 4가지 점례라 한다. 『좌전』은 ①양공 9년 ‘穆姜東宮之筮’로 ‘艮之八’을 ‘艮之隨’로 본 경우로 1, 3, 4, 5, 6효변이다. 『국어』는 ①‘重耳反國之筮’로 ‘貞屯悔豫，皆八也’ 1, 4, 5효변이고, ②‘董因迎公之筮’로 ‘泰之八’ 1·2·3효변이고, ③‘成公歸晉之筮’로 ‘乾之否’ 1·2·3효변이다.

43)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24권, 『周易四箋』, 「春秋官占補註」, 591면, “史以夏商之法，占之曰，隨其出也。穆姜以周易之義，占之故曰，是於周易云云。”

44) 이 인용문의 앞뒤에는 “사관이 말하기를 ‘이것은 艮卦가 隨卦로 변한 것입니다. 隨는 나가는 것이니, 君목강께서는 반드시 빨리 나가야 됩니다.’라 하니, 목강이 말하기를 ‘그릴 수 없다. 『주역』에 隨는 크게 형통하여 바름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라 하였다.史曰，是謂艮之隨。隨其出也，君必速出。姜曰，亡。是於周易曰，隨元亨利貞，無咎라는 언급이 있다.

45) 임재규, 「정약용 효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종교와 문화』 24,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13,

“건곤괘는 6효가 모두 순일하기 때문이고 다른 괘는 그렇게 할 수 없다[乾坤則六位俱純, 故用九用六[詳見蓍卦解] 他卦, 不能然矣.]”라고 한다. 그럼 다효변일 경우 다산은 어떻게 점단하는 효를 구하는가? 여기서 이른바 ‘萬數策’이 등장한다. 먼저 二篇之策 11,520책에 대한 말로 시작한다.

① 64괘에서 양획은 192획으로, 모두 노양 9에다 4를 곱하면 1획이 36책이 되고 36×192를 하면 6,912책이 된다. 음획 또한 192획으로, 모두 노음 6에다 4를 곱하면 1획이 24책이 되고 24×192를 하면 4,608책이 된다. 음양효로 얻어지는 것을 모두 합하면 그 책수는 11,520책이 되어 (11,520책은)모두 1개의 변효를 구하는 것이 된다. 가령, 한번 점쳐서 屯卦를 얻어 초획과 이획이 모두 순획[1획 노양, 2획 노음]이면 점치는 사람이 上贖[점대통의 상단]을 뽑아 둔괘 초구의 죽책 36책과 육이의 죽책 24책을 합 60책을 같이 섞어 돌려서 4개씩 세어 떨어진 뒤 마지막 4개에서 임의로 1개 시책을 뽑는다[任抽其一]. 만약 초구 죽책이면 초효가 변효라 屯卦가 比卦로 변하고, 육이 죽책이면 2변가 변효라 屯卦가 節卦로 변한 것이다. 이것을 일러 ‘서로 섞어 모아 변하게 한다[參伍以變]’라는 것이다.

② 만약 6자리에 변효가 많을 경우 만수책을 발휘하여 확실하게 표시하니, 역시 신명이 가리키는 것이다.

③ ‘그 수를 끝까지 궁구한다’는 것은 만수책을 사용하여 (수를)궁구한 것을 끝까지 발휘하여 반드시 변효를 얻는 것을 말한다[여러 효가 난동하더라도 단지 한 효만 변한다]<sup>46)</sup>

69~70면.

46)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24권, 『周易四箋』, 「蓍卦傳」, ①674~675면, “六十四卦, 其陽畫一百九十二[通乾卦計之] 皆以老陽之九, 而乘之以四[義見前] 則每一畫得三十六策, [四九三十六] 合之爲六千九百一十二策也. 其陰畫亦一百九十二[通坤卦計之] 皆以老陰之六, 而乘之以四, 則每一畫得二十四策, [四六二十四] 合之爲四千六百八策也. 通計陰陽爻之所得, 則其策爲萬一千五百二十, 皆所以求一爻之變者也. 假令一筮之間, 其卦遇屯, 而其初畫與第二畫, 俱得純畫[初得老陽, 第二得老陰] 則筮人抽上贖, 取屯初九之策三十六枚[四九三十六] 屯六二之策二十四枚[四六二十四] 合同滾轉合得六十策[亦四四揲之[《易》數皆用四] 取末後之策四枚[法如前] 任抽其一. 若是初九之策, 則初爻變[屯之比] 若是六二之策, 則第二爻變[屯之節] 此所謂參伍以變也.” ②678면, “若六位之內, 九, 六者多, 而萬數之策, 發揮而表著之, 亦神明之所指也.” ③682면, “極其數, 謂用萬數之策, 究極發揮, 而得其必變者也[諸爻亂動, 而只變一爻]”

다산은 위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을 했다. ①에서 양획 192획에다 36책, 음획 192획에 24책수를 곱해서 나오는 이편지책 11,520책은 변효 하나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11,520이란 수는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양의 모든 책수로 만물지수에 해당한다는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 占事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용적인 수로 점칠 때 11,520개의 죽책을 ‘점치는 道具’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산의 점법대로 점을 치려면 50개의 시초와 11,520개의 죽책 두 종류의 占具를 준비해야만 한다. 이 11,520개의 시책을 ‘만수책’이라 한다. 그는 이처럼 주자를 비롯한 선학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편지책 11,520을 만수책인 11,520개 죽책으로 되살려낸 자신의 주장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sup>47)</sup> 또 다산은 ‘만수책’ 이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11,520개의 죽책은 64괘 384효의 음양에 따라 양획이면 36책, 음획이면 24책을 각각 ‘독’에 넣어서 보관하다가, 변효를 구할 때 독을 열어 변효의 개수에 따라 각각의 독에 든 시책을 모아 섞어서 4씩 세어 마지막 남은 4개 시책에서 임의로 1개 시책을 뽑아 그 시책에 표시된 효를 변효로 삼는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음양획의 각 죽책을 모으고 섞어서 변효를 구하는 것을 ‘參伍以變’이라 했다. ‘삼오이변’의 의미에 대해 학설이 분분한데 다산은 만수책 운용으로 풀이하는 새로운 주장을 한다. 이런 계산이라면 점대통인 ‘독’은 크기에 따라 작은 것 384개[192양효: 각 36죽책, 192음효: 각 24죽책], 384개를 6획으로 구분하여 64괘에 해당하는 중간 크기 64개, 중간 크기 64개를 담을 수 있는 큰 독 1개가 필요하다. ②에서 다효변일 경우 만수책으로 변효 하나를 찾아내니 이는 신명이 가리키는 것이라 했다. 즉 만수책으로 나온 결과가 신의 뜻이라는 것이다. ③에서는 계사 상 10장에 나오는 ‘極其數’라는 말의 뜻은 만수책을 이용하여 수를 끝까지 궁구하여 변효 하나를 구함을 말한다고 한다. ‘極其數’를 만수책과 연결하는 새로운 주장을

47)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24권, 『周易四箋』, 「著卦傳」, 677~678면. “嗟呼! 古往今來, 說《易》者, 何限? 而萬一千五百二十之策, 終不肯一番推究, 以知其所發用, 則已而已而矣. 夫以萬一千五百二十之策, 藏之蓍室, 永久不動, 曰此萬物之象, 天下無此妄也. 天地萬物, 無一物不當其用, 則萬一千五百餘策, 亦必有所須用者也. …… 周公之所不作, 當於何而視繇也? 萬一千五百餘策, 不能不有作也.”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520의 쓰임에 대해 예부터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이편지책 11,520을 蓍室에 보관만 해 놓고 사용치 않으면서 ‘萬物의 象’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어리석은 일이다. 천지만물은 모두 쓰임이 있으니 11,520도 반드시 쓰임이 있다. 그 용도가 바로 다효변일 경우 1개 변효를 찾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수천 년 역학사에 처음이라는 다산의 강한 자부심이 배어 있다.

하고 있다.

### 3) 문제점

(1) 설시법에 대한 문제는 2가지라고 본다. 첫째, 다산의 설시법의 첫 요소는 ‘시책 뽑기[抽之]’로 이는 四象을 구하는 직접행위이고 이를 바탕으로 획이 결정된다. 주역 점은 기본적으로 시초를 ‘손으로 세어서[揲之]’ 四象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계사전」상 9장 때문이다.<sup>48)</sup> 여기서 보듯 설시행위의 3요소는 ‘시초를 세다’, ‘시초를 손가락에 끼운다[扚]’, ‘시초를 손가락에 건다[掛]’이다. 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시초를 세고, 걸고 끼운다’이다. 이것이 주역점에서 말하는 사상을 구하는 직접행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행위는 ‘시초를 세는 것[揲之]’이다. 이런 행위와 ‘시책 뽑기[抽之]’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다산 설시법에도 ‘시초를 세고 걸고 끼우는’ 행위가 있지만, 이는 ‘뽑기’의 전 단계의 행위이지 사상을 구하는 직접행위는 아니다. 다산 설시법에서 해당 과정을 다시 보면, 좌우 양쪽 놓인 시책을 4개씩 세어 남는 시책 1,3개 합 4개를 왼손가락에 끼우고 이 4개 시책에서 임의 1개를 뽑고, 앞에서 독대에 걸쳐 놓은 權掛 1개를 합해 2개의 시책을 비벼 돌려 1개 시책을 뽑아 거기에 새겨진 숫자에 의해 奇耦가 결정된다. 이처럼 다산 설시법에서 ‘시책을 세고 끼우고 거는 행위’는 기우를 결정하는 간접행위라서 「계사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산에서 揲蓍法은 ‘抽蓍法’과 같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다산 설시법의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본다.

둘째, ‘마지막 뽑힌 시책에 새겨진 숫자’에 의해 기수, 우수 및 四象이 정해진다는 부분이다. 다산은 시책에 ‘숫자를 새긴다[刻之]’라는 사실이 역학문헌에서 잘 보이지 않기에, 龜卜占을 칠 때의 경우와 다른 문헌의 유사한 사례<sup>49)</sup>를 들어서 시책을 자연 그대로 쓰지 않고 ‘가공[숫자 각인]’ 한다는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시초에 인공 행위’는 상당한

48) 「계사전」상 9장, “揲之以四, 以象四時, 歸奇於扚以象閏, 五歲再閏, 故再扚而後掛.”

49)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24권, 『周易四箋』, 「蓍卦傳」, 670면, “此蓍體所蓍之數也. 龜不徒用, 必以荊燠灼之[燠所以然火] 又以契刀刻之[鑿龜而鏤之] 以辨其沈陽·山陵[見『左傳』] 等一百二十之兆[見『周禮』] 蓍策亦何得以天成之質而用之乎? 故「月令」有鬻筮之文, 「周官」有相筮之法, 斯可驗也.”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sup>50)</sup>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계사전」에 나오는 실시법은 ‘시초를 세는 것’이기에 다산처럼 ‘뿔뿔한 시책의 가공으로 새겨진 숫자’에 의해 사상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2) 점단법에 대해서도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하상지구법’에 대해서이다. 다산의 주역점은 1효변이 원칙이기에 다효변은 주역점으로 점칠 수 없고 하나라, 상나라의 점법으로 점을 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라, 상나라 점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이런 다산의 태도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막연한 추측”이라거나 “추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다.<sup>51)</sup> 필자도 같은 입장이다.

둘째, 11,520개 축책, 이른바 ‘만수책’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찬사 일변도<sup>52)</sup>에서 경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인 비판<sup>53)</sup>도 있다. 필자는 기존의 소극적인 비판과는 달리 세부적 실질적 비판을 ㉠~㉢로 논증한다.

㉠ 50개의 시책으로 행한 실시행위에서 다효변이 나왔을 경우 하나의 변효를 찾

50) 김인철은 “다산은 거북점의 예를 통해 시책 역시 천연 상태 그대로 筮占에 사용되진 않았으리라고 추측한다. 『禮記』, 『周禮』의 ‘鸛筮[흔책: 시책에 희생피를 바름]’과 ‘相筮[상서: 시초를 바꿈]’라는 두 어휘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면서 시책도 인공적인 工作이 가해진 형태로 쓰여졌으리라고 단정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다산의 추단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했다. 김인철, 앞의 논문, 268~269면.

51) 방인은 앞의 2012 논문 184면에서, “정약용이 …… 이러한 서법이 夏·商의 舊文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막연한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 했고, 앞의 2016 논문 233면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연산』과 『귀장』을 實物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추정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52) 대표적으로, 김인철은 “前人未發의 卓見”, “千古의 어둠을 몰아내는 한 줄기 曙光과 같다”라고 했으며, 장정옥은 “前例가 없는 일로 가히 일종의 考古學的 발굴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극찬했다. 김인철, 앞의 논문, 26~27면, 장정옥, 앞의 논문, 146~147면 참조.

53) 임재규는 “역학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이론”, “3,000년 역학사에 있어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바를 새로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충분한 전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다산의 해석이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임재규, 앞의 논문, 72면 참조. 찬사를 위주로 하되 우려도 함께하는 의견도 있다. 신명중, 앞의 2017 논문, 99면 참조. 신명중은 11,520개 대신 乾策 216, 坤策 144 도합 360개 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다산은 각 축책에 64괘 384효명을 기재해야하고, 건곤 2괘 12효의 이름이 나머지 괘효명 전부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위해 11,520개의 죽책을 운용하는 ‘만수책 운용행위’는 제2의 점치는 행위라고 여겨진다. 하나의 占事에 占具를 달리한 2번의 점치는 행위가 주역점에서 용납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㉔ 주역점에서 시초 50개와 11,520개의 죽책, 이 2가지 점구가 필요하다는 명문상의 근거나 관습상의 전례나 유사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다.

㉕ 가장 큰 문제는 현실성이다. 앞에서 본대로 11,520개의 죽책<sup>54)</sup>을 마련하고 다듬어 64괘 384효의 괄효명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담을 384효에 상응하는 384개의 작은 韝[점대통]과 64괘에 상응하는 64개의 중간 크기, 다 담을 가장 큰 독 1개가 필요하다. 이것을 준비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물자와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㉖ 설령 만들었더라도 실제 점사에 어떻게 운용할지도 의문이다. 점치는 일은平時보다 非常時에 일어나거나, 占者가 공간을 달리해서 점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점자가 평소나 이동시에는 간편하게 시초 50개만 소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문에서 흔히 접하는 ‘利涉大川’은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마주친 큰물[難關]을 건널지 말지를 바로 결정해야 하고, ‘利有攸往’은 먼 길을 가거나 험한 일[大事]을 앞에 두고 할지 말지를 결단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때에도 만수책을 옆에 두고 운용할 수 있을까? 절박하고 시급한 경우 점자는 50개의 시초보다 오히려 擲錢法과 같은 略筮法을 먼저 생각할지도 모른다.

㉗ 占의 역사는 복잡함에서 간편함으로의 변천이다. 복잡하고 힘든 거북점에서 간편한 주역점으로 변천했다고 한다.<sup>55)</sup> 이런 면에서 만수책은 점의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이상과 같은 만수책이 지닌 문제점은 다산 점법 전체를 실용성이 부족한 ‘관념상의 점법’에 그치게 하고 나아가 ‘口頭占法’, ‘紙上易占’<sup>56)</sup>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54) 다산이 죽책의 크기나 규격을 말하지 않았다. 짐작해보면 괄효명이 적혀야 되니 폭이 1~2cm 내외 길이 10~15cm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55) 李鏡池(1902~1975)는 『좌전』과 『좌전』 중의 주역점 연구[在國中易筮之研究]에서 ‘주역점의 간편성’이 복잡 난해하고 재료구하기 어려운 거북점을 대체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춘추시대에는 확실히 『주역』으로 점을 쳤고 점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를 뿐이라고 한다. 고형·이경지·용조조 지음, 김상섭 편역, 『주역점의 이해』, 지호, 2009, 61면, 68~69면 참조.

56) 明末清初 二曲 李顥(1627~1705)은 유학이 현실에 유리된 ‘口頭聖賢’과 ‘紙上道學’을 벗어나 이웃과

만든다.<sup>57)</sup>

### 3. 백운의 점법<sup>58)</sup>

백운은 자신의 점친 경험을 바탕으로 주자 점법은 적중도가 낮다고 생각했다.<sup>59)</sup> 이런 스스로의 생각과 앞에서 본 주자 점법의 문제점과 어우러져 새로운 점법 발명의 동인이 되었다.

#### 1) 실시법

백운 점법에서 실시법에 관한 언급은 “시초를 넷씩 세어서 네 번 경영하여 易을 이룬다. 二老二少의 策數는 모두 4를 곱한 것이다[揲蓍以四, 而四營成易. 二老二少之 策數, 皆以四乘之也].”<sup>60)</sup>라는 부분이다. 그 외 실시법에 관한 다른 언급은 보이지 않으므로 지금 통용되는 주역점의 실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더라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앞에서 본 주자의 실시법이 그대로 적용되기에 언급을 생략한다.

---

함께하여 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곡 이용에 대해서는, 정병석, 「李二曲의 유학의 본질에 대한 반성적 논의와 明體適用」, 『동양철학연구』 59, 동양철학연구회, 2009, 399~422면 참조.

57) 익명의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다산의 입장에서는 주역의 점이 원래 국가의 官占이기 때문에 만수책을 활용하는 것에 하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입장에서 즉 개인의 입장에서 만수책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은 다산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다산도 개인이 점을 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산 점법은 官占이고 개인이 점을 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궁금하다. 또 심사자의 주장은 각주 27, 28 및 그 본문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된다.

58) 백운 점법에 대해서는 오동하, 앞의 논문, 121~128면, 조희영, 2019 앞의 논문, 305~311면 참조.

59)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30권, 『주역상의점법』, 860면, “今以程傳與本義, 屢試於占筮, 而未嘗或中 … 朱子之占筮, 亦何所用哉.”

60)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30권, 『주역상의점법』 44~45면, “夫用九用六者, 先後天交合, 而爲數與理之用, 故乾坤俱用四焉, 卽鄒陽四象之數也, 故揲蓍以四, 而四營成易. 二老二少之策數, 皆以四乘之也.”

## 2) 점단법

백운도 다산과 같이 효변설의 입장이므로 다효변일 경우 점단할 하나의 괘나 動爻<sup>61)</sup> 하나를 구해야 한다. 그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백운점법 점단 내용

| 구분              | 점단 내용                                                                                                                                                                                                                                                                                                                                                                                                | 비고                                                         |
|-----------------|------------------------------------------------------------------------------------------------------------------------------------------------------------------------------------------------------------------------------------------------------------------------------------------------------------------------------------------------------------------------------------------------------|------------------------------------------------------------|
| 효 불변            | 본괘 괘사로 점단                                                                                                                                                                                                                                                                                                                                                                                            | 주자와 같음                                                     |
| 한 효변            | 본괘 변효로 점단                                                                                                                                                                                                                                                                                                                                                                                            | 주자와 같음                                                     |
| 다 효변<br>(2~6효변) | 1) 變爻가 두 개 이상일 경우 老陽은 9, 老陰은 6을 적용한 수를 합하여 乾4로 빼서 8에 이르면 그친다. 4는 사상수로 빼는 수의 기준수이다. 8에 이르러 그치는 것은 坤4 <sup>62)</sup> 와 합했기 때문이다. <sup>63)</sup><br>2) 남는 수가 8을 넘을 경우 4로 빼면 그 남는 수는 혹 8이나 7이나 6이나 5가 될 것이다. (...) 8이 남으면 之卦 卦辭로 점치고, 7이 남으면 本卦 卦辭로 占斷한다. <sup>64)</sup> 8을 變, 7을 不變의 기준수로 본다.<br>3) 남는 수가 5,6이면 아래로부터 위로 동효를 세고 다시 반복하여[周而復始] 그치는 효로 점친다. <sup>65)</sup><br>4) 乾坤卦 6효변일 경우는 用九 用六 적용한다. | *5,6에다 9,6를 더한 수에 다시 4로 빼는 계산을 반복하여[周而復始] 8에서 그치는 효로 점단한다. |

61) 백운은 變爻 대신 動爻라는 말을 사용한다. 둘 다 뜻은 같다. 여기서는 혼용한다.

62)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30권, 『주역상의점법』 45면, “夫用九用六者, 先後天交合而為數與理之用, 故乾坤俱用四焉, 即陰陽四象之數也. 故揲蓍以四, 而四營成易. 二老二少之策數, 皆以四乘之也.”

63)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30권, 『주역상의점법』 45면, “凡占一爻動, 則占其爻. 自二爻動, 以上, 陽用九陰用六, 合卦中動爻之數, 而以乾四除之至八而止, 至八而止者, 合坤四之數也. 除之以乾數而剩之, 則合坤數者, 即乾之為政於易, 而坤以助成之義也.”

64)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30권, 『주역상의점법』 45면, “剩數溢于八, 則必以四除之, 其剩數或八或七或六或五焉.(乾數常盈而坤數有盈虧者, 陰陽日月盈虧之義也) 剩數八則占之卦彖辭, 七則占本卦彖辭. 卦之六爻當六數, 奎彖當七, 而之彖當八也.” 6은 六爻, 7은 본괘 괘사, 8은 지괘 괘사에 배분한다.

65)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 30권, 『주역상의점법』 45면, “剩數六與五, 則自下而上, 數動爻, 周而復始, 占其所止之爻也.”에서 필자는 ‘其所止之爻’를 5, 6인 경우, 아래 동효의 수[9나 6]를 차례대로 더하고 4를 빼서 8이 산출되는 효를 ‘8에서 그치는[至八而止]’ 효로 보고 이 효로 점단한다고 본다.

백운 점단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효가 불변이면 본괘 괘사로 점단하고, 한 효만 변했으면 본괘 변효[동효]로 점단한다. 이 부분은 주자와 다산과 같다. 2효~6효변일 경우 백운은 다르게 점단한다. 단, 건곤괘 6효변인 경우 건은 용9, 곤은 용6으로 점친다. 먼저 원칙이 있다.

① 乾과 坤의 수는 각 4이고 합은 8이다. ② 노양,노음의 9,6를 더해 건4로 빼면 나머지는 5,6,7,8이 된다. ③ 나머지가 6은 6효로 기준이 되고, 7은 본괘, 8은 지괘에 해당한다. 7은 不變, 8은 變의 기준으로 본다. 5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④ 나머지가 5,6인 경우 위 아래로 반복하여 다시 셈하여[周而復始] 점단할 효를 구한다.

위 원칙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 변효가 2개 이상일 경우 노양은 9, 노음은 6수를 더하고 거기서 4을 (계속해서) 빼면 나머지는 5,6,7,8이 된다. 7이면 본괘 괘사로 점단하고, 8이면 지괘 괘사로 점단한다. 나머지 수가 5나 6이면 아래에서 위로 동효를 세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반복하여 그치는 효로 점친다[剩數六與五, 則自下而上, 數動爻, 周而復始, 占其所止之爻也].

단, ‘數動爻, 周而復始’의 의미에 대해 2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 주장은 ‘5, 6을 동효의 아래부터 위로 다시 반복하여[周而復始] 차례대로 세어 5번째, 6번째에 해당하는 동효로 점친다.’는 설이다. 둘째는 ‘5,6에다 동효의 9,6수를 더한 수에다 4로 빼는 계산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반복하여[周而復始] 8에서 그치는 효로 점단한다.’는 설이 있다. 후자는 8이 變의 기준수라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의견이 나뉜 이유는 ‘數動爻’에 대한 명확한 풀이가 없어서 초래된 것이다. 필자는 둘째 의견을 택한다.<sup>66)</sup> 둘째 의견에 따른 예를 다음에 든다.

66) 변효의 9,6수를 더하여 상하왕복 계산하는 것을 ‘周而復始’라 한다. 남는 수가 5, 6인 경우 점단하는 효를 구하는 방법이 필자와 오동하는 다르다. 오동하는 “심대윤은 ‘어떤 수’를 가지고 周而復始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占爻之法」의 난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면서, 5와 6을 동효의 아래부터 차례대로 세어 5번째, 6번째에 해당하는 동효로 점친다고 한다.[첫째 주장 예컨대 3효변(9+6×2=21)에서 21-16=5인 경우, 아래 동효부터 위로 세고 周而復始하여 두 번째 동효가 5번째가 되므로 두 번째 동효로 점친다는 것이다. 오동하는 周而復始로 변효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高亨(1900~1986)이 창안한 점법인 變卦法이 백운점법과 닮았다고 한다. 그러나 고행은 먼저 ‘宜變之爻’를 구해야 하는 점, 荀爽의 말-營者, 謂 七八九六也-을 채택하여 「계사전」에서 말하는 四營은 7,8,9,6으로 보는 점 등이 백운과 다르다. 오동하, 앞의 논문. 116~128면: 조희영 2019년 앞의 논문, 308면.

18變의 결과 老陽9, 少陰8, 老陰6, 少陰8, 老陰6, 少陽7로 나왔다면 本卦가 山雷頤卦䷚가 되고, 초효, 삼효, 오효 3효가 변하여 之卦는 風山漸卦䷴가 된다. 백운은 동효에다 9,6수를 적용하여 합산한 수에서 4씩 빼서 8이 되면 지괘 괘사로 점치고, 7이 되면 본괘 괘사로 점친다. 남는 수가 5, 6인 경우 아래 변효의 9나 6수를 합산한 수에다 4를 빼서 나머지가 8이 될 때까지 계속 위 변효의 9,6을 더하여 다시 계산하여 8이 되는 변효로 점친다. 위의 예에서 본괘 변효에 양9 음6을 적용하여 합산 한 수는  $9+6+6=21$ 이다. 4씩 빼면  $21-4-4-4=5$ 로 8이 아니다. 다시 아래 동효(초구) 9를 더해서 살펴보면  $5+9=14-4-4=6$ 으로 역시 8이 아니다. 두 번째 동효(육삼) 6을 더하면  $6+6=12-4=8$ 이다. 이처럼 두 번째 동효에서 8이 되므로 頤卦 육삼효로 점단한다.<sup>67)</sup> 여기서 만약 초효와 삼효 두 효만 변했다고 가정하면  $9+6=15-4-4=7$ 이다. 이런 경우는 본괘 괘사로 점친다. 다른 예로, 1,2효가 노음 6이라면  $6+6=12-4=8$ 이다. 이때는 之卦 괘사로 점친다. 왜 7이고 8인가. 7은 불변의 기준이고 8은 變의 기준수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7이 나오면 변하지 않은 본괘 괘사로 점치고, 8이 나오면 변한 지괘 괘사로 점단한다(剩數八則占之卦彖辭, 七則占本卦彖辭. 卦之六爻當六數, 七則當七, 而之彖當八也). 나머지가 5,6인 경우에 周而復始하여 8에서 그치는 동효로 점치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나머지 5~6효변도 같으나 건곤괘 만은 용9 용6에 의한다.

### 3) 문제점

(1) 백운 점법의 실시법은 주자 점법과 같으므로 주자 실시법의 문제인 사상발생 확률의 불균형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즉 백운 실시법의 문제점은 노음:노양:소양:소음의 비율이 1:3:5:7로 사상이 불균형하고 특히 노음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소음이 높다는 점이다.

(2) 점단법에 대해서는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노양수 9와 노음수 6을 합해서 4를 빼는 것은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4는 四象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9,6을 더하고 4로 빼서 나머지가 7이면 본괘 괘사로 점단하고, 8이면 지괘 괘사로 점단하는 부분은 의문이다. 효변설의 입장에서 보면, 변하는 1개의 효를 구하여 그 효로 점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점단하는 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67) 아래부터 위로 차례대로 세어 해당하는 효로 점친다는 첫째 주장(오동하 주장)을 적용해도 결과는 같다. 즉 최초 남는 수5를 3개의 동효 아래에서 周而復始하면 2번째가 해당된다.

백운 자신의 효변설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여겨진다. 둘째, 5,6,7,8의 수로 점단하려는 괘와 효를 구하는 명시적 근거나 관습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6을 기준수로 두고 1이 증가한 7은 본괘 괘사, 2가 증가한 8은 지괘 괘사로 점치는 근거가 취약하고 5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주장을 하려면 다산처럼 그에 관련된 전거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제3자에게 설득력이 있다. 셋째, 앞에서 잠시 보았듯이, 나머지 5, 6을 동효의 아래부터 차례대로 세어 5번째, 6번째에 해당하는 동효로 점칠지 아니면 5, 6에다 동효의 9,6수를 더한 수에다 4로 빼는 계산을 반복하여[周而復始] 8에서 그치는 효로 점단할지 여부이다. 즉 ‘數動爻’의 의미가 ‘5,6을 가지고 동효를 (위아래로)센다’는 것인지, ‘5,6에다 동효의 9,6을 더하여 셈한다’인지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백운이 ‘數動爻’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어서 초래된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백운 점법에는 빈틈이 더러 보인다.

#### 4. 『左傳』과 『國語』의 다효변인 경우 검토

주자, 다산, 백운의 점법은 『좌전』, 『국어』의 다효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전에 하나의 의견을 소개한다. 이런 춘추시대 점례에 집착하여 굳게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어느 현대학자의 의견이다.<sup>68)</sup> 그 주장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은 중요하다. 특히 다산 점법에 『좌전』이나 『국어』의 점례가 큰 영향을 미쳤기에 다산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다산은 5효변으로 1건 ① 『左傳』의 穆姜東宮之筮魯襄公 9年 BC564 艮之八=艮之隨(1·3·4·5·6爻變), 3효변으로 3건 ② 『國語·晉語』의 重耳反國之筮魯 僖公 24年 BC636 貞屯悔豫 皆八也(1·4·5爻變), ③ 『國語·晉語』의 董因迎公之筮 魯 僖公 23年 BC637 泰之八(1·2·3爻變), ④ 『國語·周語』의 成公歸晉之筮 魯宣公 2年 BC607 乾之否(1·2·3爻變) 이상 4건을 거론하여 이 점례는 주역점이 아닌 하상지구법으로 점쳐야 한다고 했다. 주자는 5효변 『左傳』 ‘艮之八’과 3효변으

68) 楊景磐(1939~ )은 춘추시대 占筮는 정치적 목적 달성의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맹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在春秋時代, 占筮就成功實現政治目的的一種手段了。…… 就不必迷信了) 양경반, 『中國歷代易案考』, 中國國際廣播音像出版社(北京), 2006, 99면 참조.

로 『國語·晉語』의 重耳反國之筮만 『역학계몽』에 싣고 있다. 나머지 2건은 싣지 않았다. ③은 3효변으로 보지 않은 것 같고, ④는 3효변으로 봤지만 점단이 자신과 달라서 『역학계몽』에 싣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백운은 5효변 『左傳』 ‘艮之八’만 언급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여기서는 주자가 언급한 두 건 ①, ②를 백운 점법으로 하면 그 결과가 어떤지 먼저 보고<sup>69)</sup> ③에 대해서는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④는 생략한다. 끝에 다산과의 관계도 언급한다.

① 5효변인 『左傳』 ‘艮之八’은 앞에서 검토했으나 다시 재론한다. 목강이 시초점을 쳐서 간괘 ䷳의 8을 얻었지만[遇艮之八], 이를 사관이 艮卦 ䷳가 隨卦 ䷐로 변한 것이라 했다. 즉 사관은 ‘艮之八’을 간괘의 1,3,5,6효가 변한 ‘艮之隨’로 본 것이다. 백운 점법으로 계산한 선행연구는 “간괘 ䷳의 1,3,4,5,6효가 효변하여 수괘 ䷆가 되었다. 9, 6으로 아래 변효 순서대로 합산해 보면 6+9+6+6+9=36이다. 36-4-4-4-4-4-4=8이다. 남는 수가 8이면 지괘인 수괘 ䷆로 점단한다. 『좌전』의 사관이 수괘 ䷆로 점단한 것과 맞다.”<sup>70)</sup>라고 했다. 즉 백운의 점법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주자는 앞에서 보았듯, 隨卦 六二爻로 점단해야 한다고 하니 맞지 않은 것이 된다.

② 3효변인 『國語·晉語』, 重耳反國之筮 魯 僖公 24年 BC636의 점에서는 ‘貞屯悔豫皆八也’ 屯卦 1·4·5爻變을 얻었다. 이는 쫓나라 公子 重耳가 나라를 얻을 수 있는지 친히 점친 사례이다. 그 결과 ‘貞屯悔豫, 皆八也.’로 屯卦 ䷂ 1·4·5爻가 변해서 豫卦 ䷏가 된 경우이다. 이에 대해 점치는 관리[筮史]는 “모두 불길합니다[筮史占之, 皆曰, 不吉]”라고 풀이 했으나, 司空季子是 “길합니다. 이는 周易에 있는데 모두가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皆利建侯]’라고 합니다. …… 이 두 괘[屯괘와 예괘]는 나라를 얻는 괘입니다.”<sup>71)</sup>라 했다. 사공개자의 풀이를 주역점으로 본다. 그래서 주자는 ‘利建侯’는 屯卦와 豫卦의 괘사에 모두 나오는 글이므로 사공개자가 ‘모두’ ‘利建侯’라고 했고 이 두 괘는 나라를 얻는 괘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3효변으로 보고 점단은 本之卦 ䷂로 한다고 보고, 『역학계몽』에 3효변의 사례로 본 점사를 소개하고 있다.<sup>72)</sup> 백운의 경우를 보면, 노양9, 노음6, 노양9로 24이고 4의 배수로 빼면

69) 오동하는 이에 대해 주자와 비교하여 간략히 언급한 바가 있다. 오동하, 앞의 논문, 126~128면.

70) 조희영, 앞의 2019 논문, 311면 참조.

71) 『國語·晉語』, “公子親筮之, 曰: “尚有晉國?” 得貞屯悔豫, 皆八也. 筮史占之, 皆曰, “不吉, 閉而不通, 爻無爲也”, 司空季子曰: “吉. 是在周易, 皆利建侯. ……是二者, 得國之卦也.”

72) 『역학계몽』 考變占第四, 1170~1171면 참조.

24-4-4-4=8이다. 8이 남으면 지괘 과사인 豫卦 과사로 점단한다. 주자와 백운을 비교해 보면, 주자의 점단은 딱 맞고 백운의 점단은 100%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豫卦 과사[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동원함이 이롭다:利建侯行師]로 보면 나라를 얻는 과이니 50% 정확도라 할 수 있다.

③ 『國語·晉語』의 董因迎公之筮 魯 僖公 23年 BC637 泰之八에 대해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음을 선행연구는 지적하고 있다.<sup>73)</sup> 본 점은 위 ②보다 1년 전 점사이다. 그 내용은 魯나라 僖公 23년 혜공이 죽고, 秦의 목공이 晉의 공자 중이를 晉나라의 도성으로 귀환시키자, 황하에서 영접한 동인이 중이가 나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주역점을 친 경우이다. 이 건에 대해 주자나 백운의 언급이 없다. 그 대신 현대학자 3명의 언급이 있다. 尙秉和(1870~1950)는 이 건을 3효변으로 본 沙隨 程氏(程迥, 南宋人 생물미상)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이 건은 爻不動으로 본괘인 泰卦 과사로 점단해야 한다고 했다.<sup>74)</sup> 高亨(1900~1986)도 효부동으로 본괘 과사로 점단해야 한다고 했다.<sup>75)</sup> 양경반은 위소의 주석과 정형의 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괘인 태괘 과사로 점단한 董因의 점단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sup>76)</sup>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좌전』이나 『국어』의 다효변에 대해 다산과 주자, 백운의 견해가 엇갈리고 점단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점법 정확도의 우열도 가리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한 다산처럼 하상지구법을 주장한 사람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Ⅲ. 결론

이상으로 다산, 백운의 실시법과 점단법을 중심에 두고 주자 점법과 비교하면서

73) 방인, 앞의 2012 논문, 174~178면 참조.

74) 尙秉和, 『周易尙氏學』 「周易古筮考」, 九州出版社(北京), 2005, 444면 참조. 상병화는 “정형처럼 판단한다면 ‘艮之八’이나 ‘貞屯悔豫皆八’과 통하지 않는다(如程說, 施之于艮之八, 貞屯悔豫皆八, 則不通也)”라고 했다.

75) 고흥·이경지·용조조 지음, 김상섭 편역, 앞의 책, 34면 참조.

76) 양경반, 앞의 책, 99~101면 참조.

마지막에 『좌전』과 『국어』의 몇 가지 점례도 살펴보았다. 필자의 방점은 논제에 밝혔듯이 이들 점법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두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산의 분량이 많아졌다. 다산 점법의 문제점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비판하고 논증한 글은 본 논문이 처음일 것이다. 지금까지 논한 것을 아래와 같이 다시 정리한다.

주자의 점법은 현재 표준처럼 통용되는 점법이다. 물론 완벽하게 주역점의 원형을 복원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대부분 占者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의 실시법에서 문제점은 음양노소의 사상발생 확률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점단법에서 문제점은 多爻變인 경우 占辭의 충돌을 들 수 있고, 『좌전』 ‘艮之八’에 대한 해석의 임의성을 꼽을 수 있다.

다산 점법에서 실시법의 장점은 사상발생 확률이 균형적이라는 것이다. 실시법의 문제점은 2가지로 봤다. 하나는, 다산은 ‘시책 뽑기[抽之]’로 四象을 구하고 획이 결정된다. 그러나 주역점은 시초를 ‘손으로 세어서[揲之]’ 四象을 구하는 것이 「계사전」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마지막 뽑은 시책에 새겨진 숫자’에 의해 기우 및 四象이 정해진다는 부분이다. 말하자면 시초에 숫자를 새기는 ‘가공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가 「계사전」의 규정과 부합하는가 여부이다. 점단법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다산은 주역점이 1효변이 원칙이라 다효변일 경우 하상지구법으로 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하상지구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다음은 11,520개의 죽책을 사용하는 ‘만수책’에 대한 것이다. 문제를 하나씩 짚는다. ① 처음 실시행위에서 다효변이 나왔을 경우 하나의 변효를 찾기 위해 11,520개 죽책인 만수책 운용은 제2의 점치는 행위라고 여겨진다. 하나의 占事에 占具를 달리한 2번의 점치는 행위가 주역점에서 용납하는가라는 것이다. ② 주역점에서 시초 50개와 11,520개의 죽책, 2가지 점구가 필요하다는 명문상의 근거나 관습상의 전례나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③ 문제는 현실성이다. 11,520개의 죽책을 마련하여 64괘 384효의 괄효명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담을 450여 개의 크고 작은 독이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동, 보관,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현성이 문제다. ④ 비상시나 평소 이동하면서 11,520개 죽책을 소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점자가 평소나 이동시에는 간편하게 시초 50개만 소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점의 역사가 복잡에서 간편으로의 변천인데, 만수책은 이에 위배된다. 李鏡池가 주역점의 간편성이 복잡 난해하고 재료 구하기 어려운

거북점을 대체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백운의 점법에서 실시법은 주자와 같으므로 사상발생 확률의 불균형이란 문제가 발생한다. 점단법의 문제점은 3가지이다. 첫째, 9, 6을 더하고 4로 빼서 나머지가 7이면 본괘 괘사로 점단하고, 8이면 지괘 괘사로 점단하는 것은 효변설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점단할 변효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지 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 둘째, 5,6,7,8의 수로 점단하려는 괘와 효를 구하는 명시적 근거나 관습적인 사례로 입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셋째, ‘數動爻’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변효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좌전』과 『국어』의 점례에서 다효변인 경우 학자마다 다르게 본다. 다산이 다효변으로 본 4건은 주역점이 아닌 하상지구법으로 점단해야 된다고 했지만 학계의 생각은 다르다. 『좌전』과 『국어』의 占事 분석으로 어느 점법이 더 정확한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까지 탐색의 결과를 몇 마디로 요약한다. 다산과 백운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이 전혀 다르듯 점법도 서로 이질적이다. 다산의 점법은 치밀하고 복잡하면서 주관성이 뚜렷하고, 백운의 점법은 간단하지만 허점도 있다. 다산은 선학들이 논하지 않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서 점법을 창안한 점은 후학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많다. 그러나 가공한 시책을 뽑는 행위와 하상지구법 및 만수책이 다산 점법의 아킬레스건으로 본다. 특히 만수책 때문에 다산 점법이 ‘관념상의 점법’이 되어 ‘口頭占法’, ‘紙上易占’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 참고문헌

- 『韓國經學資料集成(易經)』 24권(與猶堂全書 영인본) 『周易四箋』, 『易學緒言』  
 『韓國經學資料集成(易經)』 30권(『周易象義占法』 영인본), 『易學啓蒙』(『性理大全』 本), 『周易傳義大全』
- 김상섭, 『내 눈으로 읽는 주역』 역전편 하, 지호, 2011  
 심대운 지음 익선재 백운집 강독회 옮김, 『백운 심대운의 백운집』, 사람의 무늬, 2015  
 정병석 역주, 『주역』 하권, 을유문화사, 2011  
 고형 · 이정지 · 용조조 지음, 김상섭 편역, 『주역점의 이해』, 지호, 2009  
 高懷民, 『中國古代易學史』, 송실대동양철학연구실 역, 송실대출판부, 1994  
 尚秉和, 『周易尚氏學』 「周易古筮考」, 九州出版社(北京), 2005  
 楊景磐, 『中國歷代易案考』, 中國國際廣播音像出版社(北京), 2006  
 黃壽祺 張善文 撰, 『周易譯注』, 上海古籍出版社(上海), 2007
- 구만옥, 「18세기 후반 金錫文과 『易學圖解』의 발굴-黃胤錫의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7, 2017  
 금장태, 「정약용의 “易”해석에서 卜筮의 방법과 활용」, 『다산학』 8, 다산학술문화재단, 2006  
 김재화, 「심대운 철학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8  
 김대중, 「신체유물론적 시각에서 본 심대운의 ‘노동 옹호 윤리학」, 『민족문화연구』 8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김동진, 「정약용의 주희 筮法 개량과 그 의의-음양노소 불균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산학』 32, 다산학술재단, 2018  
 김문용, 「심대운의 복리사상과 유학의 세속화」, 『시대와 철학』 2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김인철, 「茶山の 獨創的 筮占方法 : 「蓍卦傳」詳解」, 『周易研究』 6, 韓國周易學會, 2001  
 방 인, 「丁若鏞의 『春秋官占補註』의 夏商之舊法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131, 2012  
 \_\_\_\_\_, 「춘추시대 官占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 다산학술문화재단, 『다산학』 28, 2016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Ⅲ)-이익, 신후담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_\_\_\_\_,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周易四箋』 「蓍卦傳」의 성립과정」,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연구회, 2019  
 신명중, 「朱子와 茶山の 筮法에 대한 비교 연구」, 『퇴계학보』 138, 퇴계학 연구원, 2015  
 \_\_\_\_\_, 「『周易』 占筮法과 現代의 涵意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7

- 오동하, 「『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沈大允의 易學思想 研究」, 동방문화대 박사학위논문, 2018
- 윤용남, 「다산 정약용의 良心철학 체계」,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2021
- 임재규, 「정약용 효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종교와 문화』 24,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13
- 임정남, 「『春秋左傳』과 『國語』의 『周易』 應用에 관한 연구-『春秋左傳』과 『國語』의 筮例를 중심으로」,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19
- 장병한, 「白雲 沈大允의 『周易象義占法』에 대한 일고찰-19세기 天主學說에 대한 儒學의 대응과 극복의 관점에서」, 『韓國思想史學』 33, 한국사상사학회, 2009
- 장정욱, 「周易의 상징체제와 易象의 상징체계-茶山易學을 중심으로」,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정병석, 「李二曲의 유학의 본질에 대한 반성적 논의와 明體適用」, 『동양철학연구』 59, 동양철학연구회, 2009
- 조희영, 「『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白雲 沈大允 易學의 특색-새로운 占法과 爻變說 및 先後天說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 \_\_\_\_\_, 「김석문의 『易學二十四圖解』에 나타난 새로운 占筮法 연구」, 『한국문화』 9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 Exploring the Problems of the Dasan's divination(茶山 占法) and the Baek-woon's divination(白雲 占法)

Cho, Hie-young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roblems by criticall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vination methods of Dasan Jeong Yak-yong(茶山 丁若鏞) and Baek-woon Shim Dae-yun(白雲 沈大允).

First, we looked at the Zhu Xi' divination((朱熹 占法) method, which is commonly used as I-ching's divination(周易占). His problem is the imbalance in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Sasang(四象). Also, when Duoyaobian(多爻變:爻亂動) occurs, the explanation of divination conflicts and the Zuozhuan(『左傳』)'s arbitrariness of interpretation of 'Gangipal(艮之八)'.

Dasan's divination(茶山 占法) has several problems. First, the act of artificially engraving numbers on milfoil stalks(蓍草) and pulling them out without counting them is a problem. Second, when Duoyaobian occurred, it was not the I-ching's divination but the Old Method of Xia-Shang Period(夏商之舊法), but did not reveal what the content was. Third, it is a problem of operating the 11,520 bamboo pieces(11,520개 竹策) of Mansuchaeg(萬數策) to save one yaobian(1爻變) at the time of Duoyaobian. I looked at the problem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do 2 counting milfoil stalks with 50 pieces of milfoil stalks and 11,520 pieces of bamboo in one divining method, and whether there is a basis for needing two tools for divination. Mansuchaek(萬數策) saw that it was not realistic enough to be used in real-life divination.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make realistically, and even if it is made, it is difficult to operate it in actual divination.

The problem with Baek-woon's divination(白雲 占法) is the imbalance in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Sasang(四象). Also, adding 9 and 6 of Donghyo(動爻) and subtracting it by 4, if the remainder is 7, judge it with the main gwasa(本卦 卦辭). In

addition, if the remainder is 8, judge it with a jigwae gwasa(之卦 卦辭), which I saw as a problem from Yaobian(爻變說)'s point of view. I wondered if there were any explicit grounds or customary cases for finding the divination to judge with the numbers 5, 6, 7, and 8. In addition, there is no clear position on 'Count Donghyo(數動爻)', so it is difficult to find a one yaobia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 of Duoyaobian(多爻變) of the Zuozhuan(『左傳』) and the Guoyu(『國語』),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divination method was correct.

In general, Dasan's divination is detailed and Baek-woon's divination is simple, so there are loopholes. The meticulousness of Dasan's new divination by examining parts that the older alumnus did not discuss is truly astonishing. However, the Mansuchaeg(萬數策) and the Old Method of Xia-Shang Period(夏商之舊法) is the Achilles heels of Dasan's divination(茶山 占法). In particula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Dasan's divination will be reduced to 'Gudu divination(口頭占法)' and 'Gisang divination(紙上易占)' because of the Mansuchaeg(萬數策).

Key Words : Dasan's divination(茶山 占法), Baek-woon's divination(白雲 占法), Zhu Xi's divination(朱熹 占法), the Zuozhuan and the Guoyu(『左傳』과 『國語』), the Mansuchaeg(萬數策)

